



기술표준뉴스

TBT 중앙사무국 출범



해외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TBT 중앙사무국이 9월 29일(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하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타미 오버비(Tamy Overby) 대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장자크 그로하(Jean-Jacques Grauhar) 및 경제단체, 수출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하였다.

최근 관세나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무역장벽들은 점차 사라져가는 대신에 소비자 안전, 에너지, 환경 등을 중심으로 매년 1,000여 건 이상의 기술규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국가별로 수만 종의 기술규제가 있어 수출기업들이 관련규제들을 모두 숙지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

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업들의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부차별로 분산되었던 TBT 업무를 TBT 중앙사무국으로 단일화하여 출범시킴으로써, WTO, FTA 기술장벽 대응 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www.knowTBT.kr은 첨단 검색기능을 구현하는 포털사이트로 기업의 정보접근이 용이하고 특히, 20,000여개 수출업체에게 관련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정보를 받기를 희망하는 여타 기업들은 이 포털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신규 규제에 대하여 신속히 그리고 해당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국가별/업종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TBT신문고 및 온라인진분가 상담창구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TBT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전자 등 10개 분야 167명의 TBT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장관명의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기존 규제에 대하여는 연구와 분석기관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며, 아울러 현장점검반도 가능하여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용이하도록 국내 기술규제

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장벽의 분리를 낮추어 기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9개 부처가 운영 중인 19,000여종의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국제표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금년내에 구축하여 국내 기술규제의 글로벌스탠다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채민 차관은 격려사에서 TBT 중앙사무국은 참여 전문가와 서비스가 가능한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수출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평가관찰을 위한 NCA 직원 파견
- 특수 분야 세미나 또는 교육 등에 KOLAS 전문가 파견
- 카자흐스탄 소재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 (KOLAS)
- 인정분야에 대한 국제협정관련 사안에 대한 양기관간의 의견교환

- NCA(National Center of Accreditation)
: 카자흐스탄 인정기구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한국 인정기구

본 MOU를 통하여 카자흐스탄 시험기관이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을 받게 되면 국제공인성적서의 발급이 가능해지며, 양국간 시험성적서의 상호수용을 통해 카자흐 수출기업들에 납품기일 단축 등의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는 양국간 적합성평가분야 협력외에도 ISO, IEC 등 국제표준화활동에 있어서 동구권 및 CIS 지역에 대한 거점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카자흐스탄내 에너지관련 기관과 적합성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사원외교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카자흐스탄간 적합성평가 분야 협력 MOU 체결



기술표준원 남인석 원장은 '08.9.24(수) 카자흐스탄 인정기구(NCA)를 방문, 카자흐소재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 및 카자흐스탄 인정평가사 양성에 대한 양국간 적합성평가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 MOU 주요내용 >

- 교정, 시험, 검사,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 및

제5차 한·중 표준화 소위원회 개최

한국과 중국간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상호지시 및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진출 등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중 표준화 소위원회 회의가 '08.9.23(화) 중국 공명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허경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정책국장



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실현가능 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중 표준화 소위원회 : '04년 제1차 회의(북경) 이래 매년 교대로 개최하여 왔으며,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협력, 양국 표준관련 정보교환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구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최근 개편된 표준제정의 민간이양, 기술규제 대응지원 등 표준정책방향, 산업표준화법 및 국가표준기본법의 최근 개정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국제표준화기구의 3개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진출 및 3종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공동지지 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술위원회 임원 진출 : [ISQ 소형선박(간사), [IEC 고압직류선원(의장), 가정용 냉징고시험 및 썬개(의장)
· 국제표준 신규제안 : 가정용 자동제어장치, 신재생 에너지 2종

한편, 중국측은 쓰바오취엔 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11명이 참석하여, 중국의 표준화연구 관련정책 및 기술위원회 체계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동 회의에서는 금년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ISO/IEC 정책위원회 임원 선거에 있어 양국의 진출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ISO/TMB(기술관리이사회) 위원 신규 진출, IEC/CB(이사회) 및 SMB(표준화관리이사회) 위원 재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 ISO/TMB(기술관리이사회) : ISO TC(기술위원회)에서의 표준화관련 정책사항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3년, 연임가능 / 야국 신규진출 추진)

· IEC/CB(이사회) : 일반적 정책사항 총괄(임기 3년, 연임가능 / 현 위원 : 주더영 반도체협회 상임고문)
· EC/SMB(표준화관리이사회) : TC(기술위원회)에서의 표준화관련 정책사항 총괄(임기 3년, 연임가능 / 현 위원 : 박세광 경북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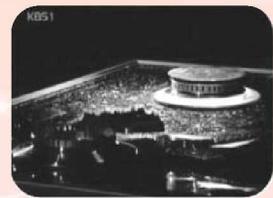
○ 중국도 ISO/TMB 재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가스레인지 상판유리 안전기준 대폭 강화

기술표준원은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의 파손사례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KS규격을 개정하였다.

가스레인지 상판 재료로 주로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청소가 용이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강화유리를 사용한 가스레인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의 장시간 사용 또는 강화유리 결함 등의 이유로 상판 유리에 파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새로운 안전기준 마련이 요구되었다.

· 가스레인지 상판 파손사례(KBS 보도)



기술표준원은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약 5개월에 걸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능검증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안전기준이 추가된 KS규격을 개정·고시('08.8.25) 하였다.

가스레인지 안전기준의 주요개정 내용

① 250℃이상 가열된 유리상판에 5℃, 50ml의 물을

- 빛은 내열충격시험에서도 안전하도록 대폭 강화.
- ② 강화유리 파쇄 시험 기준 추가 및 유리 재료 제한 조건 강화.
 - ③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구조 및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기준 이상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 ‘기존 KS규격 : 150℃ 수준으로 기열된 유리상판에 5℃, 10ml의 물을 붓는 내열충격시험만 규정

이번 KS규격 개정으로 가스레인지 상판유리의 안전성능이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이 유아가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을 사용하였거나 침대 바닥이 파손되었고, 유모차 14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집합 방지장치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적발된 15개의 불량제품 가운데 13개 제품이 저가 수입제품이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조치하였다.

또 어린이악세사리, 유아용침대 등 유아·어린이 용품을 안전 취약품목으로 지정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가능.

어린이용 액세서리 납 기준치 초과 검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평균 28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 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쇼핑몰과 일반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모차, 유아용침대,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액세서리 등 총 4개 품목 4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여자 어린이들이 많이 갖고 노는 복걸이 등 액세서리 8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에서 유해중금속 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평균 28배까지 검출됐다. 유아용캐리어에서는 14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2.4배 검출됐고, 2개 제품은 쉽게 분리되는 작은 부품을 사용해 유아나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아용침대의 경우에는 10개 제품 가운데 3개

물류설비인증업무 민간 이양

기술표준원은 기업불류표준 활성화와 불류설비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인 (재)한국전자채시험연구원을 불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 인증업무를 이양('08.9.30) 하였다.

그간 정부는 물류설비표준의 이행확산과 표준설비 활용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정 의무인증제도인 불류설비인증제도(LS)를 도입('04.7), 수출·배출 등 4개분야 34개 품목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물류설비인증 현황('07.12말 현재)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합 계
6업체/13설비	86업체/156설비	12업체/21설비	15업체/29설비	121업체/219설비

※ 비정규기업 : 우통신연발저번 제27(물류설비의 이양)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류설비의 품질과 가격 등을 검사하는 전담 성능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지정·운용하고 있다.



이번 물류실비인증제도의 민간이양을 통하여 물류표준화 이행이 확산되어 포장·운송·하역·보관·정보 등 물류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물류표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화물유통에 있어 인관성 및 호환성이 가능한 유닛 로드시스템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불류비 절감 등 산업경쟁력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향후 물류실비업계의 규모, 인증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민간이양의 기대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복수지정,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KOLAS 인정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진공밸브 등 반도체장비 국산화 추진

최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장비 산업에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진공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의 전문가(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제안한 '잔류기체분석기의 사양'에 대한 국제규격안이 '08.9.8-10 동경에서 개최된 ISO/TC 112(진공기술분야) 기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제표준으로 추진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국 이면서도 기초기술은 이에 걸맞게 구축되어 있지 못해 관련장비 및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잔류기체분석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한 국제표준화 과제가 승인됨으로써 우리 고유 개발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진공밸브 생산, 이온게이지, 잔류기체분석기 측정기술분야의 국내기술이 표준에 반영되어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국내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분야의 진공장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ISO2961-1 '커플링치수'에 대해서도 커플링의 치수들 40mm에서 50mm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이에 대한 개정안 준비를 우리나라에서 맡기로 함으로써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진공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조기에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7월 12일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추진한 '진공밸브시험절차 및 이온게이지의 사양'은 이번 동경 회의('08.9.8-10일)에서 국제규격안(DIS)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각국 투표표를 위한 최종안 작성을 남겨 놓고 있다.

이번 국제 표준화 작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진공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주도, 국내 진공기술 제품의 수출을 견인하는 등 국가간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더 많은 우리의 진공기술이 ISO 규격으로 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표준화를 통해 아직은 일천한 반도체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촉진지원 할 계획이다.

아세안 대상 기술·표준 교육 실시

기술표준원은 아세안 10개국의 기술사 20여명에 대하여 9월 21일부터 6박7일의 일정으로 기술·표준교육을 실시하였다.

- 리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참여하는 기술자들은 전기·전자분야에서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재료분야에서는 한국전자재료시험연구원 등에서 각각 교육을 받았다.





- 전기·전자 분야의 교육은 정보사무기기, 가정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및 전자파 시험 등을 실시하고, 산업재료 분야에서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혼합물, 고분자 재료 등의 평가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 훈련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세안측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양측간 시험분석 능력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 많은 아세안 국가들은 제품의 생산 능력은 확보하고 있으나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시험·분석의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다.

따라서 아세안 각국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기전자 제품 및 산업재료 분야에 대한 평가 및 시험분석 기술 등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은 '05년 서명되어 '07년 6월1일 발효되었으며, 이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16개 분야의 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경제협력에 더하여 신규로 3개의 추가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며,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시험연구능력을 갖게 되도록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기술과 시험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우리기술이 세계로 확산됨은 물론, 나아가 아세안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향상함으로써 세계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금번 기술·표준관련 지원은 그간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적다는 평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여러 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이행과정에서 개도국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동 교육에 참여한 아세안 각국의 기술사들과 지속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통하여 국제표준 분야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MOU체결



기술표준원은 9월10일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위원장 정용빈)와 디자인산업 발전과 색채표준정보의 공동 활용 및 색채·디자인 산업 기술개발 등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술표준원의 색채표준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표준과 디자인을 통한 국민의 편의향상과 안전한 환경조성 및 색채·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03년도부터 색채관련 KS 정비를 시작으로 한국표준색표집, 한국표준색이름 통합본, 표준색이름 디지털팔레트 등을 제작·보급하는 등 국가 색채표준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07년도에 "색농코리아"라는 로고를 선정하여 국가 색채표준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08년도 6월 지식경제부, 대구광역시의 지원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지역 공공디자인개선사업, CMF(Color, Material, Finishing)정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가 색채표준의 확산 및 색채·디자인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국내의 RFID/USN 표준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던 모바일RFID포럼, RFID확산포럼, USN포럼, RFID국제표준화대응위원회 등이 모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정부의 산업발전 전략에 맞춰 국내 RFID/USN 표준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RFID/USN 표준화 통합협의회 출범

미래 유통물류산업의 혁신과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의 핵심적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는 RFID/USN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표준화 통합협의체가 출범했다.

기술표준원은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RFID/USN 산업의 표준화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3일 "RFID/USN 표준화 통합협의회"의 공식 출범회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7월 공표한 "RFID/USN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에 따라, 그동안 유관 기관 및 포럼별 분산 추진해 온 표준화 기능을 통합 연계하기 위하여 정부, 유관기관, 학계, 업계등 25인의 표준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운대학교 임주환 석좌교수를 협의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운영규정을 의결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RFID/USN 3대 원천기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파수, 식별코드 관리 및 응용어플리케이션·단말기의 시험인증 등 RFID/USN 표준화 전반에 대한 산업계 합의를 도모하여 침체된 응용분야 시장 활성화에 주력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RFID/USN 기술개발·확산사업 및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산업 정책과 표준화 연계를 강화하여, R&D 결과에 대한 우리나라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에 주력하고 응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